

##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백 민 호 ' 국립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부·방재기술전문대학원 교수

### 1. 시작하며

미수연구논집(2002.2)중 許穆의 災異觀의 내용에 “자연의 변덕스러운 변화에 삶의 많은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살아야 했던 조선사회에서 자연재해란 항상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삶을 농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봄가뭄, 여름의 홍수, 이른 서리, 전염병 등 다양한 자연재해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파괴하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타 들어가는 전토, 배고파 우는 아이, 전염병에 죽어 길가에 늘어진 시체, 고향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유이민 등의 모습이 조선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노력, 곧 그 고통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것이다.

조선 500년에 가뭄과 홍수의 걱정을 떨쳐버린 해가 거의 없었지만 17세기의 자연재해는 강도와 발생 빈도의 면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시기였다.

이시기를 살았던 미수 허목(眉瘦 許穆1595-1682), 허목선생이 삼척부사로 있던 시기에『東海頌』을 지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세워 재액(해일)을 물리치며, 자연재해를 접했던 사례를 본고에서 소개해 본다.

### 2. 척주동해비의 유래

척주(陟州)는 삼척(三陟)의 옛 지명으로 조선조 현종 원년(1660년) 미수 허목(眉瘦 許穆) 선생이 삼척부사로 부임할 당시 동해에는 격심한 해파와 조수(潮水)로 여름철에는 강구(江口)가 막히고 오십천이 범람하여 백성들은 매년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큰 재앙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수 허목(眉瘦 許穆)선생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그가 터득한 철학의 극치를 담은 요묘한 문장인「동해송(東海頌)」을 지어 그의 독특한 전서체(篆書體)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세웠다(1662년).

그 후 이곳에서는 수마가 없어졌다고 하며, 이때부터 조수를 물리치는 위력을 지닌 신비로운 비석이라 하여 일명「퇴조비(退潮碑)」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비는 삼척 앞바다 바위섬 위에 세워졌던 것이 풍랑으로 파손되자 조수피해가 다시 일어나므로 숙종

35년 부사 홍만기(洪萬紀)가 원문을 찾아 개각한 것을 이듬해 2월에 부사 박내정(朴乃貞)이 죽관도(竹串島:지금 六香山) 동쪽 산록에 비각을 짓고 안치했다.

지금의 위치인 삼척시 정라진 옥향산정에 이전한 것은 1969년 12월이었으며,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3. 척주동해비의 소개

척주동해비의 규모는 높이 170cm, 넓이 76cm, 두

께 23cm이다. 현종 3년(1662)에 건립한 ‘척주동해비’는 일명 ‘퇴조비(退潮碑)라 불리듯이 조류(潮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당초에는 만리도에 건립되었다.

이후 숙종 34년(1708) 풍랑으로 비석이 부러져 바다에 잠겼던 것을 동왕 35년 부사 홍만기가 문을 본떠서 다시 새겼으며, 동왕 36년 삼척 부사 박내정이 죽관도 동쪽에 다시 건립하였다가 1969년 12월 6일 현재의 위치인 옥향산 산정에 이전하였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각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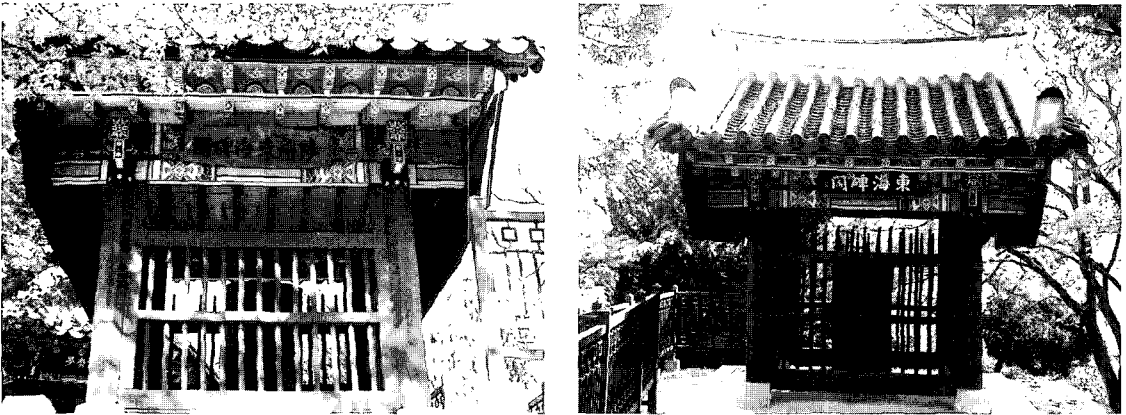


그림 1. 척주동해비각(전면,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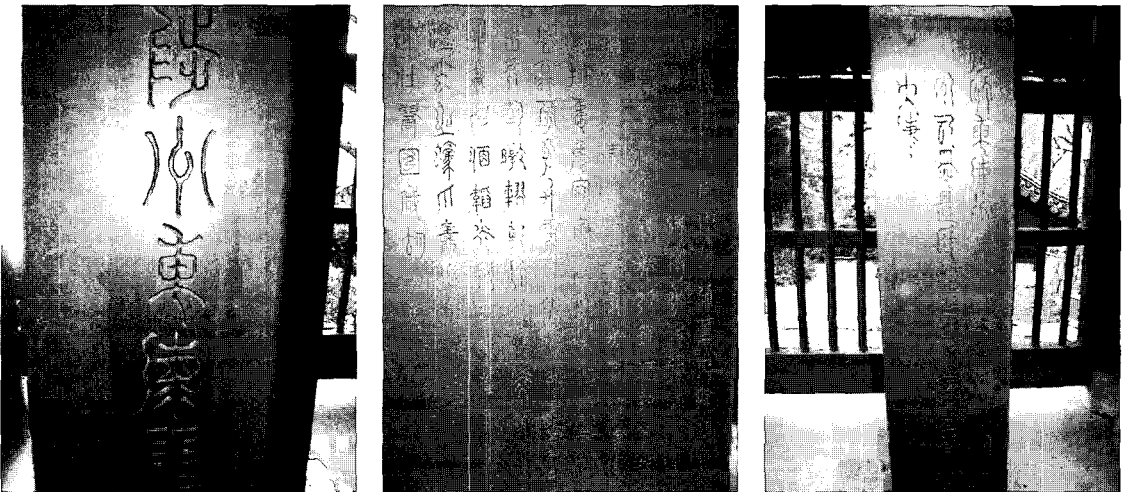


그림 2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의 내용(전면, 후면, 측면)

면에 “적주동해 비각” 제액과 후면에 “동해비각” 제액이 게재되어 있다.

평수토찬비 비문 역시 삼척 부사 허목이 짓고 쓴 것이다. 중국 형산비(衡山碑)의 대우수전(大禹手篆) 77자 가운데 48자를 가려서 새긴 것으로, 임금의 은총과 수령으로서 자신의 치적을 기린 글이다. 현종 원년(1661) 목판에 새기어 읍사(邑司)에 보관되어 오다가 240여년 후인 광무 8년(1904) 칙사(勅使) 강홍대와 삼척 군수 정운철 등이 왕명에 의해 석각하여 죽관도에 건립하였다. 비의 높이는 145cm, 폭 72cm, 두께 22cm이며, 비각의 전면에 “우전각(禹篆閣)” 제액이 게재되어 있다.

#### 4. 비문의 풀이

州古悉直氏之地 在예墟 南去京都七百里 東臨大海 都護府使 孔岩 許穆書

(주고실직씨지지 지예허 남거경도칠백리 동림대해도호부사 공암 허목서)

이 고을은 옛날 실직씨의 땅으로 예나라의 옛터 남쪽에 있으며, 서울에서 7백리이고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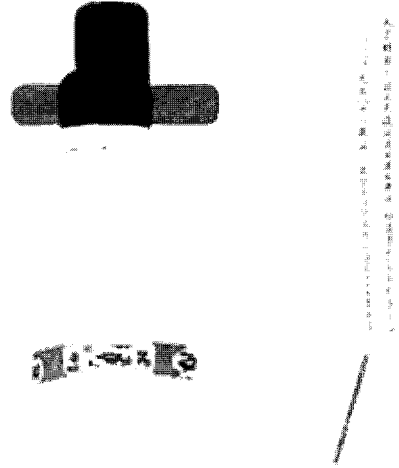
도호부사 공암 허목 씀.

瀛海溟渤(영해망양) 큰 바다 넓고 넓어  
 百川朝宗(백천조종) 온갖 냇물 모여드니  
 其大無窮(기대무궁) 그 큼이 끝이 없어라  
 東北沙海(동북사해) 동북쪽의 사해(沙海)여서  
 無潮無汐(무조무석) 밀물과 썰물이 없으므로  
 號僞大澤(호위대택) 대택(大澤)이라 할 만 하네.  
 績水稽天(적수계천) 바다 물 하늘에 닿아  
 渤遶汪濊(발홀왕예) 출렁뒹이 넓고도 깊으니  
 海動有嘯(해동유예) 바다가 움직임에 음산함이 있네.  
 明明陽谷(명명양곡) 밝고 밝은 양곡(陽谷)으로  
 太陽之門(태양지문) 태양의 문이라

羲伯司賓(희백사빈) 희백(羲伯)이 관장하고,  
 析木之次(석목지차) 석목(析木)의 성차(星次)이고  
 牝牛之宮(빈우지궁) 빈우(牝牛)의 성궁(星宮)이니  
 日本無東(일본무동) 해뜨는 동쪽의 끝이구나.  
 教人之珍(교인지진) 교인(蛟人)의 진기한 보배는  
 函海百產(함해백산) 바다 속의 온갖 산물이라  
 汗汗滿滿(한한만만) 한도 없이 많으며,  
 奇物譎詭(기물흉괴) 기이한 물체 조화를 부려  
 婉婉之詳(완완지상) 꿈틀대는 그 상서로움은  
 興德而章(흥덕이장) 덕(德)을 일으켜 나타남이로다.  
 蚌之胎珠(방지태주) 조개 속에 든 진주는  
 興月盛衰(여월성쇠) 달과 성쇠(盛衰)를 같이 하니  
 旁汽昇霏(방기승비) 기운을 토함에 안개가 오르고,  
 天吳九首(천오구수) 머리가 아홉인 천오(天吳)와  
 怪夔一股(괴기일고) 외발달린 괴물 기(夔)는  
 颺回且雨(표회차우) 폭풍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네.  
 出日朝暾(출일조돈) 아침에 돋는 햇살  
 軫軋炫煌(교알현황) 구석구석 밝게 비추니  
 紫赤滄滄(자적창창) 자주색 붉은 빛 서늘하여라.  
 三五月盈(삼오월영) 보름달 등근 달  
 水鏡圓靈(수경원영) 하늘에서 밝게 빛나니  
 列宿韜光(열숙도광) 별들이 빛을 감추네.  
 扶桑沙華(부상사화) 부상(扶桑)의 사화족(沙華族)  
 黑齒麻羅(흑치마라) 흑치(黑齒)의 마라족(麻羅族)  
 撮髻莆家(촬계보가) 상투 튼 보가족(莆家族)  
 唳蠻之蠓(연만지호) 굴조개를 잡는 연만족(唳蠻族)  
 爪蛙之猴(조와지후) 원숭이가 많은 조와족(爪蛙族)  
 佛齊之牛(불제지우) 소를 좋아하는 불제족(佛齊族)  
 등은  
 海外雜種(해외잡종) 바다 저편 잡종(雜種)이라  
 絕儼殊俗(절당수속) 종족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지만  
 同囿咸育(동유함육) 같은 땅 위에서 자라서,  
 古聖遠德(고성원덕) 옛 성인의 원대한 덕화에  
 百蠻重譯(백만중역) 온갖 오랑캐 거듭 통역하여  
 모여드니

無遠不服(무원불복) 멀리까지 복종하지 않는 곳 없  
구나.

皇哉熙哉(황재희재) 훌륭하고도 빛나도다.  
大治廣博(대치광박) 큰 다스림 넓고도 크나니  
遺風邈哉(유풍막재) 남긴 기풍 원대하여라.



5. 동해송(東海頌)을 쓴 미수 허목(眉瘦 許穆)  
은 누구인가?

- 본관(本貫) : 양천(陽川)
- 호( 號 ) : 미수(眉瘦)(눈썹이 긴데서 유래)
- 익호(諡號) : 문정(文正)
- 생존연대(生存年代) : 1595(선조28)~1682(숙종 8)
- 관직(官職) :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63세)

- 최초관직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64세),  
삼척부사(三陟府使, 66세), 대사헌  
(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우참  
찬(右參贊, 80세), 우의정(右議政,  
81세)

- 저서(著書) : 동사(東事), 방국왕조(邦國王朝), 경  
세(經說), 경례유찬(經禮類纂), 미수  
기언(眉瘦記言), 심학도(心學圖)

조선조때의 문신, 60세가 되도록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다 뒤늦게 관직에 등용되어 우의정까지 지내는  
그는 이황선생의 성리학을 물려받아 이기일원론을 주

그림 3. 미수 허목의 초상  
(作者未詳, 朝鮮 1794年頃, 비단.彩色, 99.5×75.0)

장했고, 근기학파로서 실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  
며, 청남파의 영수가 되었다.

글씨는 전서에 능하여 동방 제 1인자였고, 그림과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예학(禮學)에 있어서 일  
가를 이뤘다.

사헌부 장령시절(1660년) 경자 예송에서 남인이 실  
각되자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2년간 재임하는 동안 많  
은 업적을 남겼는데 척주동해비도 이때 세운 것이다.

참고문헌

1. 미수연구회. 미수연구논문집. 2002.4, pp237-258
2. 삼척시. 척주동해비 홍보지
3. <http://www.hoammuseum.org>